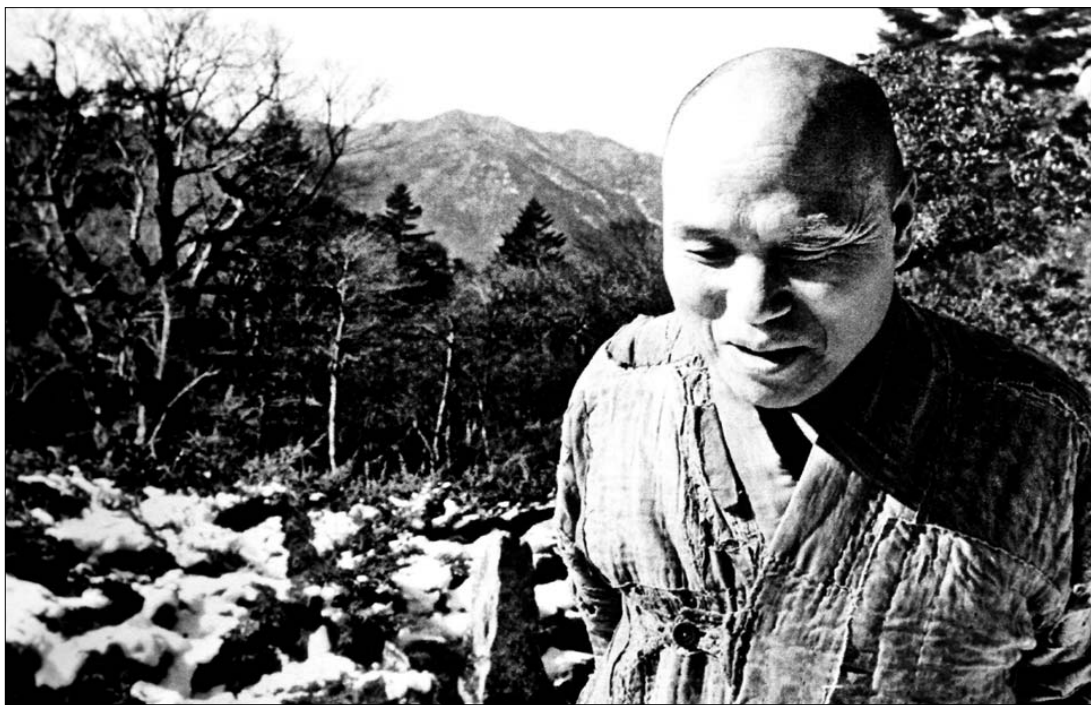


# 극단성 벗어난 '돈수' 여야...



**가야산 호랑이의 체취를 맡았다**  
서명원 지음  
서강대학교 출판부 펴냄  
1만6천원



**예수회 사제 서명원 교수 논문 6편 묶어**  
**스님의 삶·사상 깊이 있게 재조명**  
〈선문정로〉의 326 인용문 철저 분석  
**백련불교문화재단 오류 부분 지적**

하고 있는 제1장은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사상(선문정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면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철 스님이 88권의 전통적인 경문 및 조사어록에서 발췌하여, 〈선문정로〉에서 소개한 326개 인용문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을 6개의 그림 자료와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성철 스님의 해석학적 시각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스님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제1부의 제2장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조명하는 돈점논쟁"에서는 돈점 논쟁을 통해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경전인 신약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돈점논쟁에 있어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돈점논쟁에 있어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아주 가까운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성철 스님이 주창한 '돈오돈수' 사상의 구체적 의미를 그분이 그리스도교 최고의 핵심적 경전인 신약성서에서,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표현이나 유사한 낱말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불교용어들이 뜻하는 진리에 대한 체명의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성철 스님은 간화선을 통하면 누구나 단박에 구경각에 이를 수 있다고 한 반면, 그리스도교에서 '단박에 깨쳐 단박에 수행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저자는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서 나타난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관계를 통해 돈오돈수의 우수함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성철 스님을 지눌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지눌 없는 성철'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철 스님 사상의 한 특성인 극단성에 빠지지 않으면서 돈오돈수의 핵심성을 받아들일 때 한국불교가 더 아

름답게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제2부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포스트-퇴옹성철'은 제1장에서 가야산 호랑이의 선사상을 민주주의 요람인 서구 문명에 알리기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어려움을 지적하고, 제2부에서는 퇴옹성철의 영향 아래 한국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인정받아 온 간화선을 서구 문명에 진출시킬 때 만나게 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1987년 〈돈황본 육조단경〉을 펴낸 성철 스님이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생애 및 전서가 월계관을 씌웠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성철 스님과 스님의 사상이 한국 현대불교에 미친 영향력과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능해 볼 수 있다.

제3부 '20세기 한국사와 퇴옹성철의 사후-깨달음과 역사인가, 역사와 깨달음인가?'는 영어 논문 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가세존과 초기불교, 아쇼카불교의 사회와 정계의 관계를 살펴보고, 역사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돈점논쟁의 정치적 배경을 각각 드러낸 뒤, 현대 한국돈점논쟁 역시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대하여 6가지 공진점 또는 공명점을 들어 입증해 낸다.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한국불교계에 가장 큰 충격 파를 일으켰던 분이 바로 성철 스님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적인 정서상, 워낙 거인이었기에, 그동안에는 주로 성철 스님의 장점들에 대한 의견들은 많았으나 스님의 생각을 정면에서 지적하는 일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책은 보조지눌 선사의 '돈오점수' 사상과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며 일관되게 '돈오돈수'를 주창했던 성철스님의 삶과 사상을 자세히 조명하면서 장단점들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각도로 잘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성철 스님 신앙운동 단체인 백련불교문화재단의 관계자는 박재재 교수가 쓴 성철 스님의 열반승 일부분이 잘못 기술됐으며, 서명원 교수의 영어 논문 내용 중 성철 스님이 득제와 조응했다는등의 내용은 오류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우리 고전으로 지구를 살린다

〈녹색고전〉한국편

김옥동 지음 | 비제 펴냄 | 1만3천원



"이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지구의 몰락'을 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학문도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기도 힘든 오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구와 공존하는 지혜가 아닐까. 책은 그 길이 고전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문학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고, 중년 이후의 삶을 환경 운동에 바친 석학 김옥동이 침몰하는 '지구 호'에 탑승한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녹색 외침이다.

빠른 성장으로 인해 날로 풍요로워지는 세상. 오늘의 지구다. 그러나 경제중심, 물질중심, 인간중심을 뜻하는 그 관점의 이면에 생태를 훼손하고 환경을 외면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국제종교 자사고에 매달려 자라는 기형적인 사회, 수십억 종의 생물이

**"지구와 공존하는 지혜 고전에 있어"**  
**"봄과 가을에 생물을 죽이지 말라" 등**  
**우리 문화에 깃든 해안 통해**  
**환경위기 극복 방법론 제시**

매일같이 멸종되는 하루하루, 갈 곳을 잃은 철새와 돌고래들이 길을 잃고 집단으로 자살하는 하늘과 바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참모습이다. 환경학자들은 입을 모아 2050년의 지구,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호랑이의 꾸짖음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한 셈이다. 그뿐인가. 봄과 가을에 생물을 죽이지 말라고 이른 원광법사의 가르침부터 〈청산 별곡〉에 묘사된 은거와 '힐링'의 공간으로서의 자연, 화물불에 던져지는 이(蟲) 한 마리를 두고도 슬퍼한 옛사람들의 삶까지... 문학적으로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우리 고전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담은 생태 교과서로 읽어두 손색이 없다.

책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옛 노래부터 현대 작가들의 작품까지, 오래도록 기억될 우리 고전 30선을 선별해 각 꼭지를 여는 글로 삼았다. '창세무가'에 담긴 무궁한 생명력, 연암 박지원의 〈호질〉에 담긴 엄중한 꾸짖음, 〈삼국유사〉에 담긴 만물 평등사상, 그리고 이양하의 〈나무〉가 전하는 살아 숨 쉬는 자연, 우리 문화에 깃든 해안을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에 담기 쉽고 호소력 있게 전한다. 여기에 인기가수 김경호의 '만물의 영광'과 같은 대중가요까지 더해 고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는 법을 보여준다. 고전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김옥동식 고전 읽기' 아발로 논술의 핵심이자 사유의 확장이다.

발간의 의의는 첫째, 고전문학이 말하는 자연 친화적 삶을 통해 생태의식 개선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창세무가〉에서부터 김지하의 〈작은 것을 보자〉와 같은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전작품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생태적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문학 읽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교과중심의 해설을 탈피하고 우리 고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열린 사고'의 장을 마련했다. 주입식 교육의 단점인 '획일화된 해석 방법'을 탈피하여 1318세대 아이들이 '생각의 틀'을 깨고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는 '고전은 어렵다'는 편견을 없앤 것이다. 옛이야기를 듣듯 짧지만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고전을 읽는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다.

넷째, 시공간을 초월해 널리 사랑받는 작품을 선별하여 '생태 문학'의 계보를 이어갈 대표작을 총망라했다. 환경문학에 관심이 있는 환경운동가 및 생태교육 교사라면 〈녹색 고전〉 한국편과 곧 출간될 동양편, 서양편을 통해 '녹색 문학'의 계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생태 문학 읽기'라는 쉬운 실천을 제시했다. 책은 재미있는 고전 읽기를 통해 생태의식을 깨우는 비평서이자 그것을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안내서이다.

이처럼 생태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녹색 고전〉은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아이들에게, 혹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잊어버린 어른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자, 물질만능주의가 양산한 자원낭비 세대와 인간중심주의가 불러온 참혹한 생태 위기를 재조명하는 책이다.

박재원 기자

저자 김옥동은

한국의국어대학 영문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시시피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뉴욕 주립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세계의 문학〉에 '언어와 이데올로기-바흐친의 언어이론'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후 교수이자 저술가, 번역가, 평론가로서 주목받았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문학이란 무엇인가〉 등을 펴냈고, 〈위대한 개츠비〉〈앵무새 죽이기〉 등을 번역했다. 가속화되는 환경문제를 목도하며 '생태 위기 시대에 문학도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온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답을 찾아 '문학 생태학'이나 '녹색 문학'을 읽는 방법론을 도입하여 현대사회의 생태의식을 일깨웠다. 2000년 〈한국의 녹색 문학〉을 출간하며 환경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1한국출판학술상을 수상하였고, 꾸준히 생태문학을 연구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서강대 명예교수 및 한국의대 통번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불기2558년 단기4347년 甲午年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 중국광동육조사 한국육조선원

한국 육조선원 용화사 방장 석연화

부 원 장 : 법봉, 일웅, 원덕, 청산, 혜봉  
원로위원 : 지암 대선사, 건우 대선사, 도선 대선사  
총무국장 : 혜광 총무부장 : 혜성

☉ 육조선원(용화사) 금강계단  
전계아사리 연화 대화상 교수아사리 정암 대화상  
갈마아사리 청암 대화상 설계아사리 법광 대화상

☉ 존증사(칠증사)  
법봉 대선사, 청산 대선사, 임웅 대선사, 금봉 대선사  
종섭 대선사, 혜문 대선사, 자운 대선사

☉ 선원장  
서울 영산선원 혜성 대구 수미선원 도관 부산 은진선원 지암  
울산 희망선원 자운 김포 무량선원 무량 충북 사미선원 월암  
전남 만덕선원 법장 정읍 은곡선원 은곡 경북 월각선원 월각  
경남 도술선원 정원 원주 보림선원 혜일 강원 길상선원 혜선

주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용암2리 247번지 용화사  
전화 : (033)761-7008, 766-2556 / FAX : (033)761-3200 / 서울사무소 02)766-6800

##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명예종정 승산 소림사 방장 석영신

종정 석연화

☉ 원로원장 돈오 ☉ 총무국장 혜일  
☉ 사서실장 무영 ☉ 총무부장 혜광

- 서울교구장 혜성(영산선원)
- 경기교구장 수월(수월선원)
- 경기교구장 혜봉(옥천선원)
- 원주교구장 혜일(보림사)
- 강릉교구장 수인(청룡사)
- 충북교구장 연동(금강사)
- 경남교구장 자운(희망사)
- 경남교구장 법봉(상지암)
- 경북교구장 금봉(길상사)
- 양산교구장 혜문(대용사)
- 본사주지 혜암(용화사)
- 본사총무 혜광(용화사)

중국 승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 02)766-6800, 766-6900  
중국 승산 소림사 본찰 미륵산 용화사  
(대)033-761-7008 / FAX : 033-761-3200